

국내 친환경차 증가 가속도...누적 150만대 돌파

10월 151만5000대로 전년보다 38.3% 늘어...광주 3만8225대 전체 등록 2540만2000대 중 5.96% 차지 "2025년 283만대 무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친환경차도 4만대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처럼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연기관 차량의 인기는 시들어가고 있다. 특히 경유값 급등 사태까지 겹친 디젤차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를 보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는 지난해 10월(109만5000대)보다 38.3% 증가한 151만5000대를 기록했다. 9월 말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147만8000대였다.

150만대 돌파는 2021년 7월 100만대를 돌파한 지 1년 3개월 만으로, 친환경차는 2019년 4월 누적 등록 50만대를 넘었고 2년 3개월 후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540만2000대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96%까지 올랐다. 2014년 말 0.70%에 불과하던 친환경차 비중은 2020년 3.37%, 2021년 4.65%로 꾸준히 상승했다.

친환경차 151만5000대 중 하이브리드차가 112만1000대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36만5000대, 수소차는 2만7000대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동월 대비 29.6%, 전기차는 72.7%, 수소차는

54.3%가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하이브리드차는 4.42%, 전기차는 1.44%, 수소차는 0.11%다.

2020년 말 13만4000대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2021년 23만1000대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친환경차 283만대 보급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친환경차도 지난 달 3만8225대가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911대보다 36.95%(1만314대)나 증가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는 같은 기간 2만2211대에서 2만8729대로 29.35%(6518대) 늘었고, 전기차는 4806대에서 8451대로 75.84%(3645대) 급증했다. 수소차는 894대에서 1045대로 16.89%(151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환경차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과 달리 내연기관차는 주춤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월 말 국내 전체 휘발유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1201만3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휘발유차는 여전히 전체 자동차 등록 대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 광주도 4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2025년 친환경차 283만대 보급 목표 역시 달성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사진은 국내 대표 전기차인 기아의 'EV6' (왼쪽)와 현대차의 '아이오닉' 모습.



수의 47.2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작년 10월보다 0.12%포인트만 상승했다. 경유와 LPG차는 전년 대비 등록 대수가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경유차는 977만9000대, LPG차는 191만3000대 등록됐다. 각각 작년 10월과 비교해 1.1%, 1.9% 감소했다. 10월 경유와 LPG차의 점유율은 각각 38.50%, 7.53%로 작년 10월보다 1.35%와 0.33%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

주에 등록된 휘발유차는 31만4862대로, 전년 30만 9297대 대비 1.79%(5565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경유차의 누적 등록대수는 작년 26만7133대에 비해 올해 26만4207대로 1.09%(2926대) 감소했다. 반면 LPG차는 8만8911대에서 8만9207대로 0.33%(296대) 늘어나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경유차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자동차 제조사들도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해 경유차 판매는 구

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유가격 급등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디젤차 감소 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신차도 계속 출시되고 있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판매는 계속 늘 것"이라며 "화물차 등 상용차를 제외하면 디젤차 소비는 줄어들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테슬라 제쳤다

유럽 자동차 전문지 평가 "역동적이면서 쾌적한 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전동화모델'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테슬라 모델 Y와 포드 머스탱 마하-E GT를 앞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웃도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GV70이 테슬라 모델 Y와 포드 머스탱 마하-E보다 "역동적이면서도 쾌적한 차"라고 평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국내에서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생 전기차 모델 역시 타사의 전기차 전용 모델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의 미가 크다.

GV70의 유럽 내 경쟁 모델 비교평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모두 테슬라 모델 Y와 맞먹는 독일 전문지의 비교평가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아웃도 빌트는 아우토 모토 스포츠(Auto Motor und Sport),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GV70은 평가항목 중 ▲편의성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569점으로 561점을 받은 모델 Y와 509점을 받은 머스탱 마하-E를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했다.

특히 GV70은 서스펜션 성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에서 우위를 점해 '편의성' 항목에서만 경쟁자 대비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격차를 벌일 수 있었다.

아웃도 빌트는 "제네시스 GV70의 쾌적하고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뛰어난 커넥티비티 기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GV70 전동화모델은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320kW(부스트 모드 시 360kW),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동력성을 갖추고 있으며, 77.4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400km의 최대 주행가능거리(국내 인증 기준)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 ANC-R(Active Noise Control-Road)를 적용해 고객은 느끼는 실내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춰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했으며, 모터의 구동력과 제동력을 활용해 각 바퀴에 토크를 최적 분배하는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eDTV)을 통해 최적의 승차감을 선사하는 등 강인하면서도 안락한 주행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 GV70 내연기관 모델은 지난해 모터랜드 2022 올해의 SUV에 선정됐으며, JD파워 2022 상품성 만족도 조사 소형 프리미엄 SUV 부문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현대차 모터스포츠, WTCR 드라이버·팀 부문 동반 우승

현대자동차 모터스포츠가 2022 WTCR에서 드라이버 및 팀 부문 챔피언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현대자동차는 28일 서킷 경주차 '엘란트라 N TCR' (국내명 아반떼 N TCR)은 지난 26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코니쉬 서킷에서 진행 중인 2022 WTCR 최종전에서 올해 드라이버와 팀 부문 동반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엘란트라 N TCR로 출전해 온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의 미켈 아즈코나(Mikel Azcona) 선수는 이번 시즌 개막전인 프랑스 대회부터 3차전 헝가리, 4차전 스페인, 8차전 바레인 대회까지 여러 차례 우승하며 드라이버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미켈 아즈코나는 27일 결승 레이스를 앞두고 26일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예선에서 총 8포인트를 획득하며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8년 가브리엘 타쿠니(Gabriele Tarquini), 2019년 노버트 미첼리츠(Norbert Michelisz)가 경주차 'i30 N TCR'로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미켈 아즈

코나가 엘란트라 N TCR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현대차 동차의 뛰어난 고성능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 또한 미켈 아즈코나와 노버트 미첼리츠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팀 부문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WTCR 대회는 제조사의 직접적인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Customer Racing) 대회다. 현대차 경주차로 고객 레이싱팀이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 소속 미켈 아즈코나 선수가 2022 WTCR 사우디아라비아 대회에서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 짓고 포디움에 올라서 포효하고 있다.

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는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차량의 우수성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 데모데이 및 시상식 현장에서 참석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인니 소셜벤처 육성 열기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 데모데이 개최 826개 팀 지원 경쟁률 55대 1...15개 팀 선정

현대차그룹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 데모데이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는 인도네시아의 환경,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현지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현대차그룹의 소셜벤처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진행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에는 모집 단계부터 총 826개 팀이 지원, 55대 1이라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팀을 선발해 팀당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6개월간의 전문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및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데모데이에서는 선발된 스타트업 15개 팀이 최종 평가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

최종 발표가 끝난 후 현대차그룹은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임팩트, 사업 확장성, 프레젠테이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3개 팀을

선발하고 총 5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최종 1위로 선정된 팀은 일상 속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화 번역·통역 앱을 개발한 'Hear Me'로 상금 32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영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품 제조 업사이클링 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팀 'Syams'와 코딩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 지역에 저렴한 프로그래밍 교육 플랫폼 제공 사업을 제시한 팀 'AlgoBash'가 차례로 2,3위에 선정되며 각각 1600만원과 8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소셜벤처를 꾸준히 육성할 계획이다"라며 "단순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이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임팩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국내 제조 차 수출 1위

한국GM이 생산하는 쉐보레의 소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가 10월 국내 제조 차 수출 1위를 기록했다.

한국GM은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10월 자동차통계월보를 인용해 트레일블레이저가 형제 모델인 뷰익 앙코르GX와 함께 10월 한 달간 1만7958대를 해외 판매에 승용차 모델별 수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9년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준중형급의 공간 활용성, 필요에 따라 전륜·후륜구동 전환이 이뤄지는 스위처를 AWD 등 SUV 본연 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파노라마 선루프, 발동작만으로 트렁크를 여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 기능 등 고급 옵션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GM의 판매 실적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2만 6811대를 판매해 4개월 내리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쉐보레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3개월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브랜드 5위권에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쉐보레는 10월 국내 시장에서 1586대를 국내에 판매하며 베스트셀러 브랜드 4위에 오르며 연중 최고 판매량을 달성했다. /연합뉴스